

강영안 교수(서강대), 김영길 총장(한동대), 신국원 교수(충신대) 추천!

신의 존재 · 사랑 · 성 · 인생의 의미에 관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논쟁

# 루이스 vs. 프로이트

C.S. Lewis and S. Freud

유신론자 루이스와 무신론자 프로이트의 대논쟁, 승자는 누구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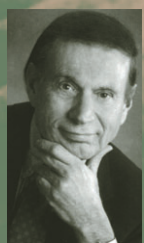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론가인 C. S. 루이스와, 천재적 무신론자요 정신분석학의 거두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세계관 '맞짱' 대결! 신앙 · 불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인류사적 대논쟁 — '신은 과연 죽었는가?' —의 승자는 누구인가?

"자료 검증이 철저하고, 논증은 탄탄하며, 문제는 읽기 쉽다." — 강영안/서강대 철학과 교수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아무리 바쁘더라도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신념은 무엇이며 과연 그 신념대로 살고 있는지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한다." — 김영길/한동대 총장  
"이 책의 장점은 두 세계관의 극명한 대조를 루이스와 프로이트의 삶의 모습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 준 데 있다."

— 신국원/충신대 신학과 교수

"이 책을 읽는 동안, 우리는 마치 루이스와 프로이트가 한 강의실에서 논쟁점들을 하나하나 논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 보스턴 글로브 The Boston Globe

— 이랜드 M. 나콜라이 지음/홍승기 옮김/A5신변형/364면/양장/15,800원



이랜드 M. 나콜라이

하버드 의대와 부속병원인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정신과 교수로, 각 대학과 의대에서 사용되는 교재 (하버드 정신의학 가이드)의 편집자이자 공저자이다. 백악관 공중위생국장과 평화봉사단 자원위원을 역임했으며, 하버드 대 학생들에게 25년 넘게 줄곧 루이스와 프로이트에 대한 강의를 해 왔다.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홍성사

사고 社告

주식회사 홍성사는  
2004년 10월 1일에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홍성사 Book News

121-885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77-9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이 소식지는 무가치無價値입니다.

2004년 9-10월

## ‘이재철 목사 설교’를 분석한다

이 글은 2004년 7월에 발간된 교회성장연구소의 <CHURCH GROWTH Journal 7> 특집 “최고의 설교가 5인을 분석한다”에서 발췌한 것이다. 교회성장연구소는 박선희 목사(소망교회 원로), 옥한흠 목사(사랑의교회 원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이재철 목사(전 주님의교회)의 설교를 각각 설교학자와 목회자가 분석하여 글을 실었다.

### 본질로 돌아오게 하는 구심력을 가진 설교

#### 철저한 강해설교

이재철 목사의 설교는 철저한 강해설교이다. 따라서 그의 설교에는 오늘 날 대부분의 ‘제목 설교’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어나 구절을 아무 연관 없이 단편적으로 언급한다든가, 본문의 실제 메시지와 전혀 상관없는 대지를 구성한다든가, 단순한 석의 또는 나열식 주석으로 끝난다든가, 관련 있는 성경구절을 모조리 연결시킨다든가 하는 잘못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의 설교는 말씀을 순서대로 보는 것이다. 주님의 교회에서의 10년 동안 주일예배는 마태복음(3년)과 요한복음(6년 2개월) 강해로 채워졌고, 제네바 한인 교회에서의 3년 동안은 사도행전 강해(13:14-23장)에 집중할 정도로 철저히 말씀을 순서대로 강해하였다. 물론 그의 설교는 제목도 없고 대지도 없이 그냥 한 절 한 절 읽어 나가며 단순한

해석으로 끝나는 요즘의 잘못된 강해설교 유형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본문 해석은 물론 적용과 전답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말씀을 순서대로 묵상한다는 것은 설교자의 취향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는 설교 준비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시야를 극복할 뿐 아니라 설교를 통해 회중들의 사고態勢과 시선을 주님의 사고, 주님의 시선으로 회복하려는 설교자라 할 수 있다.

#### 서론과 예화의 탁월한 사용

본문의 해석이 그에게 있어 본질을 캐기 위한 작업이라면 적용은 그 자신과 회중을 위해 본질을 드러내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 이재철 목사는 ‘이재철 표’ 서론과 풍성한 예화를 사용한다. 그의 예화는 논지에 아주 적합한 것들로 이미 알고 있는 예화도 그가 전달 때는 새로운 이야기, 새로운 관점

이 들어 있는 듯 예화의 재구성 능력도 탁월할 뿐 아니라 실제 세간에 알려진 이야기 이상을 말한다든가 면에서 그가 이 부분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 그러나 사실 그가 사용하는 예화는 대부분 그의 경험에서 나오는 ‘이재철 표’다. 그의 경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인간의 경험이란 점에서 공감의 토대가 되면서도 처음 듣는 것 같고 새롭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그의 독특하면서도 깊은 통찰력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그는 확실히 세간의 화제가 되는 ‘김재중 어록’의 주인공 김재중을 능가한다. 특히 서론에서 그가 던지는 여러 예화들은, 주로 그는 한 개의 이상의 예화를 사용하는데, 처음에 이것과 오늘의 본문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생각하게 하다가 어느새 그 양자를 기가 막히게 연결시키는 통찰력으로 설교를 듣는 회중들을 압도한다는

점에서 그의 설교 특유의 강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설교에 동원되는 예화, 특별히 그것이 모방이 되는 인물인 경우 그것은 자칫 모방론 설교가 가져오는 위험, 즉 크리스천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하나 남은 이디 계시나 하는 비판의 여지가 있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고난주간 설교 “목숨을 버리노라”(요 10:1-15)에서 예화로 소개한, 떠돌이 여아에게 호적과 300만 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준 목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포인트를 끌고 나가는 대목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설교 준비부에서 인간과 그리스도의 차이를 소개하고 인간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함으로 그 위험을 극복하고 있다.

오현택 박사/그리스도신대 신학대학원 강사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 성3부작

## 하이마트가기전,

「탁월한 '결혼생활' 도우미, <결혼 4부작>을 소개합니다」

**준비된 결혼, 준비된 배우자**  
린다 델로우 지음/양은순 옮김/A5신변형/반양장/8,800원  
정동섭(열린대학 가정사역학과) 교수, 김병년(IVF 신임간사훈련담당) 목사 추천!  
“준비된 결혼”은 행복을 약속한다. 이 책은 어떤 혼수보다 예비부부에게 더없이 소중한 선물 이 될 것이다.” —정동섭/열린대학 교수

**남자도 잘 모르는 남자의 성**  
이치볼드 하트 지음/유선명 옮김/A5신변형/304면/9,000원  
래리 크럼, 릭 워렌, 게리 폴리스 추천! 미국 물리학과 교재!  
“건강하고 충만한 삶에 관건 있는 남자 모두가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을 적극 추천한다.” —게리 폴리스/라비리대학 심리학과 교수

**여자도 잘 모르는 여자의 성**  
이치볼드 하트 지음/김종철 · 박진숙 옮김/A5신변형/360면/10,000원  
이영애(신성회) 실장 · 배정원(성문화센터) 소장 추천!  
“여성이 원하는 것은 먼저 줄과 대화를 통한 성적 친밀감이라는 메시지가 이 책을 읽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밝은 빛으로 전달되기를 바란다. 기쁘게 추천한다.” —이영애/신성회 상담장로실장

**부부도 잘 모르는 부부의 성**  
조셉 델로우 지음/김선형 · 김용국 옮김/A5신변형/352면/10,000원  
성인권(리브리성교회) · 주서택(새침치서역면연구회) 목사 추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성의 아름다움과 통상함을 이해 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옷 입혀 줄 것이다.” —주서택/새침치서역면연구회장

티타임에 나누는 기독교 변증

정성욱 교수와 풀어 가는 기독교 궁금증 16

알라스터 맥그래스의 제자 정성욱 교수의 쉽고 명쾌한 기독교변증!

장로회신학대학 교무수 총장, 영성교회 김삼환 목사, 두레마을 김진용 목사, 부흥과개혁사 박근식 목사, 두란노 유증성 출판본부장, 제자교회 화중부 목사 강력 추천!

정성욱 미국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서 석사학위(M.Div.)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 신학부에서 알라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 교수 지도하에 조목신학 박사 학위(Ph.D.)를 취득했다. 현재 미국 테네시 주 킹 칼리지 신학 교수이며, 미국 코스타(RCSTA) 해외유학술사인 겸사, 미국 장로회신학대학 특별강사를 역임했다.

정성욱 지음/민음의 글들 213/A5신변형/224면/본문24쪽/8,800원

## 요한과 더불어

### 전10권 완간

6년 2개월에 걸친 요한복음 설교, 《요한과 더불어》 전10권 완간!

6년여간 주일예배 강단에서 선포한 요한복음 설교를, 다시 6년여간 다듬고 손질하여 드디어 전10권으로 완성된 설교집 《요한과 더불어》를 내놓는다.

※역순 완간

“총 21장으로 되어 있는 요한복음을 주님의교회에서 6년 2개월에 걸쳐 설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특별한신 은총이었습니다. 매주 주님께서 복포수처럼 쏟아 부어 주시는 말씀의 은수에 설교를 준비하다 홀로 눈물 흘린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집 출판을 위해 다시 6년여 간 원고를 기다들으면서 주님께 더 깊이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물보다 못한 이 미천한 종을 통해, 주님께서 당신의 통 큰 교회와 양떼를 어떻게 다스리고 돌보셨는지를 생생하게 재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리글에서

이재철 지음/A5신/각 권 10,000~15,000원

TEL. 333-5161 FAX. 333-5165 http://www.hsbooks.com E-mail:hsbooks@hsbooks.com

홍성사

6년 2개월에 걸친 요한복음 설교 대장정

## 요한과 더불어

### 전10권 완간!

온고지신 溫故知新

회망의 사람들

라르슈

정 바니에 지음/김경선 옮김/민음의 글들 168/A5신변형/120면/6,500원/2002년

가장 작은 자들과 함께 살았던 바니에의 자전적 기록과 사진 40여 장의 라르슈 이야기.

이디스 셰퍼

라브라 이야기

이디스 셰퍼/양혜원 옮김/민음의 글들 29/A5신변형/360면/3,600원/2001년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 프랜시스 셰퍼의 아내가 쓴 라브라의 어제 오늘 내일에 관한 감동적인 이야기.

광야에 마련된 식탁

예수원 이야기

현재인 지음/양혜원 옮김/민음의 글들 168/A5신변형/288면/양장/9,000원/1999년

대천대 신부의 아내인 현재인 사모가 전하는 예수원의 역사. 그것은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기적이었다.

저 출간되었고, 그 뒤 7권에서부터 1권까지 역순으로 이어지게 된 것일니다.

둘째, 이미 설교한 내용을 읽는데 왜 그토록 오랜 기간을 필요로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완전한 원고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설교전날의 밤에 이 말인 이상 그 원고는, 상대의 귀에 들려 주기 위한 말의 원고였습니다. 반면에 설교집이란 글을 통하여 설교를 눈으로 읽는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내용의 설교이지만, 책으로 읽기 위해서는 말의 원고를 글의 원고로 바꿀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틀레면 어투를 문투로 가다듬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 퇴임 후 3년 간 제네바 한인교회를 섬기는 등, 분주한 일정으로 인하여 일시에 모든 원고를 손볼 형편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아쩔 수 없이 틈이 나는 대로 원고를 가다듬다 보니, 이제야 완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마리글에서

홍성사

책임편집 편집부 hsbooks@hsbooks.com

### 지면안내 紙面案内

비평 批評  
‘이재철 목사 설교’를 분석한다 01

구간 曲刊  
‘가을편지’ 박두진  
(당신의 사랑 앞에)서 02

신간 & 근간 新刊 & 近刊  
신간 <루이스 대 프로이트>  
(나와 하나님), (변해야 별한다)  
근간 <예전의 사람>, <시편사> 03

광고 廣告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논쟁, 승자는 누구인가? 04



## 소설 읽기 1

## 레포트 비하인드

팀 라헤이 · 제리 켄킨스 지음/홍종락 옮김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

LEFT BEHIND

## 1. 가솔소년 저드

그 친절한 노복사는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위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준비되지 못한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드가 그 어느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혼자만의 비밀이었다.

기회는 많았다. 여름성경학교 때 친구들은 기도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저드는 당혹스러웠다. 그래서 저드는 친구들에게 자신은 집에서 이미 영접기도를 했다고 말했다. 몇 년 뒤, 한 수련회에서 젊은 연사가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기독교 신자가 아닌 애들이 있다고 말했다 때 저드는 좌절감을 느꼈다. 그때는 앞에 나가서 고백하고 싶었다. 정말 그러고 싶었다. 그러나 자신은 벌써 성경구절 암송 상과 성경 빨리 찾기 상을 받은 후였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저드는 결국 두려움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저드는 앞으로 나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고도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자신을 달랬다. 영접기도를 혼자 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었다. 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 그리고 주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면 되는 거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모음이 끝나고 그때의 감동도 사라지자, 저드는 영접기도만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그냥 넘어갔다.

저드가 가장 큰 좌절감을 느낀 것은 열두 살이 되어 많은 주일학교 동생들이 세례를 신청했을 때의 일이었다. 빌링스 목사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세례란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임을 선포함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은 세례를 받을 때 자신들이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말해야 했다. 저드는 그때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질렀다. 그는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하고 자신이 '수련회'에 가서 혼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꾸며냈다.

저드는 그 일을 두고 몇 주 동안 좌절감에 시달렸지만 부모님이나 주일학교 선생

님 누구에게도 말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무엇인가 저드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바로잡는 일을 막고 있었다. 이제 저드는 열여섯 살이 되었고, 아무도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믿고 있다. 그는 교회에 싫증이 났고, 부모님에게 불만투성이었으며, 자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남몰래 뿌듯하게 여기기까지 했다. 지금은 하는 수 없이 교회에 가지만, 언젠가 자기 스스로 선택할 날이 분명히 올 것이었다.

카드사의 사소한 실수로 저드 통ס2세는 자유를 향한 티켓을 갖게 되었다. 그는 아버지가 은행과 현금인출기에서 신용카드로 현금을 꺼내는 걸 본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술카드로 지불할 수 없는 게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물론 집으로 날아올 청구서를 보고 부모님이 자신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이에 더 멀리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다.

며칠 동안 저드는 매일 현금인출기로 한도액까지 인출해서 현금을 모았다. 저드는 그 돈을 작은 아버지의 아시아 출장에 따라갔을 때 발급 받은 여권과 함께 숨겨 두었다. 그때 저드는 여행 내내 자신이 얼마나 지루한지 기회가 날 때마다 아버지에게 상기시켰었다. 아버지가 그것이 "평생에 다시없는 기회"라고 아들을 설득하려 했으나 결국은 포기하고 말았다.

사실, 솔직히 말해 저드는 목했던 호텔과 음식도 근사했고,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 도시를 둘러보는 것 또한 재미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은 없었다. 저드는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출장길에 함께 끌고 온 유일한 이유는, 어머니가 말하는 소위 "나쁜 물음 듣이는" 친구들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라는 것을 말이다. 부모님은 그 출장으로 저드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았다. 아버지가 노력했다는 점은 저드도 인정하지만, 부자간의 끈끈한 유대는 생기지 않았다. 그전 주로 저드가 오만삼을 짜꾸리며 사사건건 불평하고, 대들고, 집에 보내달라고 때를 썼기 때문이었다. -본문에서

## 가을편지

박두진

너는 어디에 지금 있니?

방향도 거리도 모르며 이 편지 너에게 띄운다.

낙엽에 써서 띄운다.

동일지, 남일지, 서일지, 북일지.

바람이 알아서 실고 가게 바람에 띄워서 보낸다.

한여름, 푸르고 푸르게 싱싱하던 잎이 가을로 물들어 땅으로 툭툭 떨어지는, 노오랗게 곱게 물든 노란 가을 잎. 바람갈개 곱게 물든 핑빛 가을 잎.

하고 싶은 나의 말,

듣고 싶은 나의 몸음,

낙엽에다 적었으니 읽어 보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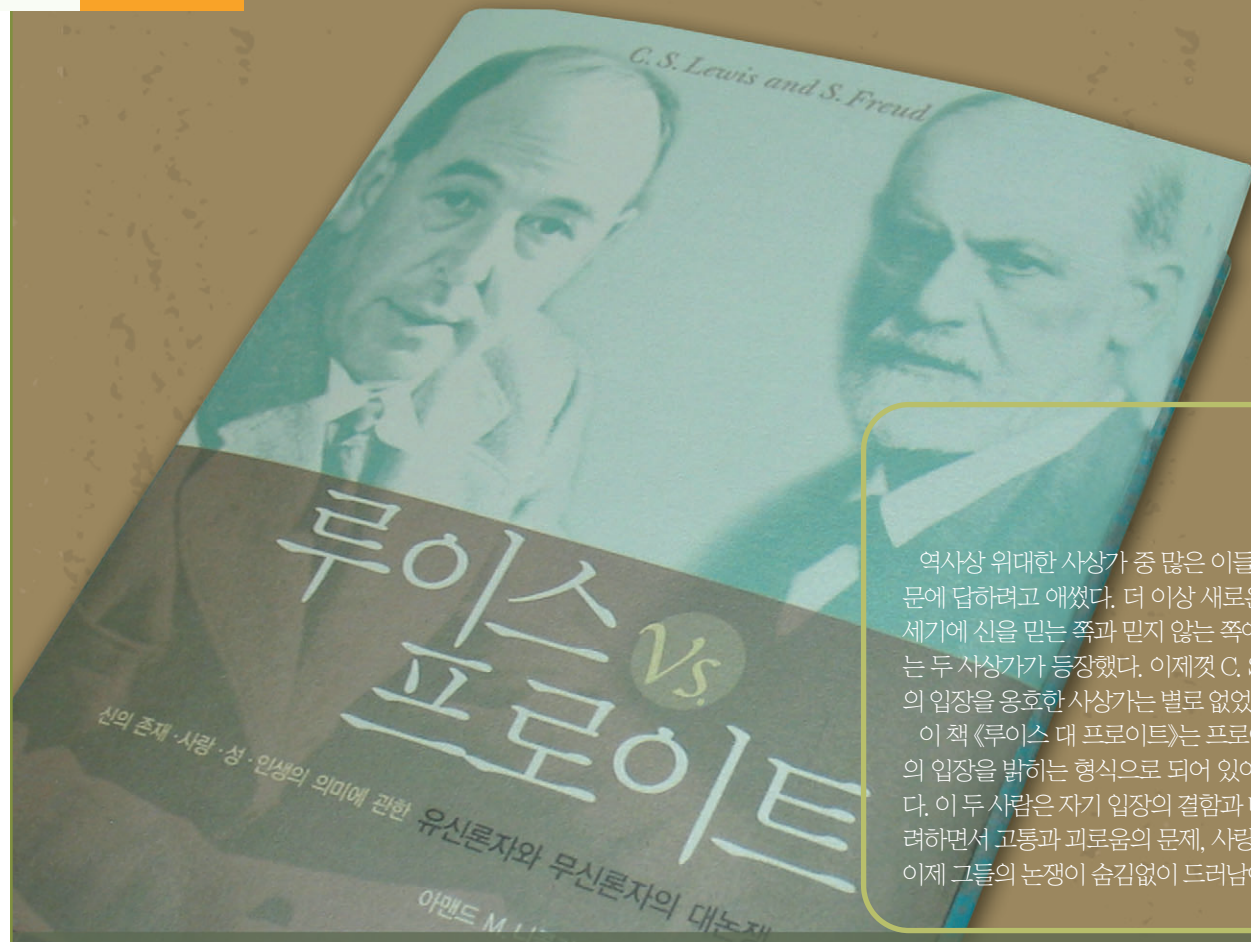
낙엽에다 일렀으니 들어 보아라.

파아랗게 높은 하늘, 가을 하늘 사연, 붉은 눈물 진한 핑빛 땅의 가을 사연, 내가 배게 듣고 싶은 너의 사연 눈물, 내가 배가 하고 싶은 너의 상처 선행,

나도 너도 아작은 어쩔 수가 없는 한잎 한잎의 낙엽에서 눈물을 읽어라. 한잎 한잎의 낙엽에서 핑물을 읽어라.

— 시집 《당신의 사랑 앞에》에서

## 신간 1



## 성적 사랑이 행복의 원형인가?

프로이트와 루이스는 인간의 경험과 감정을 상당히 정확하게 묘사하는데, 행복에 대해 뚜렷이 서로 다르게 정의한다. 처음에는 이 차이가 놀라워 보일지 모르나, 그들의 세계관이 결국 다른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하도록 이끌었음지라도, 왜 그들은 감정 그 자체를 다르게 정의하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이트의 행복관은 그의 유물론적 세계관에 기초한 것으로 나타내며 루이스의 정의는 그의 영적인 삶을 반영한다. 프로이트는 행복을 쾌락, 특히 우리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서 오는 쾌락과 같다고 본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행복은 사람의 본능적 소망을 만족시키는 것의 문제이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상당히 저주받은 욕구의 충족으로부터 온다. ……성적(생식기)의 사랑은 가장 강한 만족을 주

며 모든 행복의 원형이다.” 프로이트는 이러한 “쾌락 원칙”이 “시작부터 정신 기관에 가치를 부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성적 쾌락을 단지 “일시적인 현상”으로만 경험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 동안만 행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행복의 가능성은 이미 우리의 체질에 의해 제한된다”고 설명한다. 그는 “인간이 ‘행복’ 해야 한다는 취지는 ‘창조’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결론짓는다. 루이스는 창조의 계획 속에는 우리의 행복이 포함되어 있지만 그 계획에 자질이 생겼다고 믿는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들을 창조하셨다. 우리의 먼 조상들은 반역했고 그들의 자유의지를 도박판을 베풀는 데 사용했다. 그리고 그들 자신은 자신의 주인이 되기 위하여…… 또한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신을 위한 일종의 행복을 창안하기 위하여 자유의지를 사용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에게 자

유의지를 주셨을까? 악을 가능케 하는 것도 자유의지만, 사랑이나 선이나 기쁨에 가치를 부여하는 유일한 것 또한 자유의지기 때문이다. 자유의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에 불과할 것이며 하나님은 맹목의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관계하기를 선호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조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행복으로서, 거기에 비하면 지상에서 남자가 나누는 가장 황홀한 사랑조차 불만 우유처럼 싱거운 것이다. 바로 이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다.”

루이스는 성적 만족이 가장 강한 쾌락을 주며 그래서 모든 행복의 원형이라는 프로이트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결혼생활에서도 행복은 성적 연합보다 훨씬 더 많은 것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루이스는 세상의 어떤 쾌락도 우리를 만드신

## 신의 존재 · 사랑 · 성 · 인생의 의미에 관한 유신론자와 무신론자의 대논쟁

아일랜드 M. 니콜라이 지음/홍승기 옮김/A5신변형/양장

장한 대결의 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일랜드 니콜라이 교수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25년 이상 두 인물의 철학적 저술들을 연구하고 두 세계관을 비교하는 인기 있는 강의를 해 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루이스와 프로이트의 개인적 서신들을 반대하게 모으고, 이미 출간되었거나 아직 출간되지 않은 저술들을 수년에 걸쳐 연구 · 조사한 열매를 제시하고 있다. 그는 신앙과 불신앙에 관련된 모든 주요 질문들에 대해 프로이트와 루이스가 스스로 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부터 결론을 능숙하게 이끌어 내고 있다.

《루이스 대 프로이트》는 어느 담이 정답인지를 전혀 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껏 쓰인 신앙과 불신앙에 관한 최고의 책일 것이다. 독자들은 마지막에 이르러 니콜라이 교수의 강의를 수강한 수많은 학생들처럼 어느 길을 따라야 할지 스스로 결정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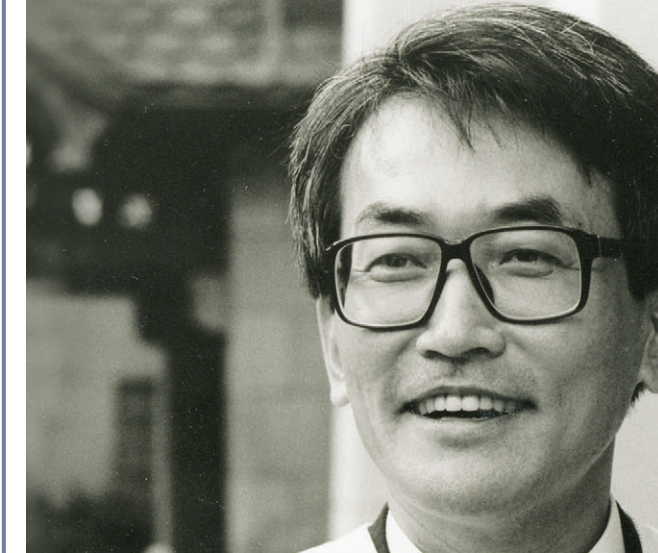
성에 너무 집착했다고 생각했다. 프로이트와 루이스는 둘 다 인간의 성의 쾌락의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가장 부덕하고 숭고한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일 수 있으나, 동시에 고통과 죽음의 원인이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프로이트의 부모는 둘 다 천천 중에 랍비라는 독실한 유대인 가문 출신이었다. 프로이트는 서른 살이 되기까지 결혼하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전기 작가들은 그가 그 때까지 성경이 없었다는 점에 동의한다. 프로이트의 공인된 전기 작가인 에너스트 존슨는 프로이트가 결혼생활 내내 충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특히 일부원리주의적”이라고 묘사했다. 마지막 아이인 안나가 태어난 지 3년 후에 프로이트는 아내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다. 그 당시에 만족할 만한 유일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더 갖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학자들이 있다. 그들은 또한 프로이트가 1916년에 행한

한 강연을 지적하고 있다. 그 강연에서 프로이트는 “성적인 활동이 재생산의 목적을 포기하고 오직 쾌락을 추구할 경우 우리는 그것을 정도를 벗어난 것이라고 말한다.”(어쨌든 프로이트가 성적 자유의 국제적 인상이 되었는지도 이해하기 어렵다.)

루이스는 화심한 뒤 성 충동을 처음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 시기에 자기 자신에게 그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더 만족했던 것 같다. 루이스는 프로이트에 비해 더 활발한 성생활을 했다. 그는 처음에는 친구였다가 나중에 연인이 된 여성과 늦은 나이에 성적 활력을 즐겼다. 루이스는 《헤어 본 슬픔》에서 “지난 몇 년간 아내와 나는 사랑에 탐닉하였으며 그 갖가지 양식을 다 즐겼다. 심심한 것은 아니고 충족하지 않은 바가 없었다”고 썼다.

-6장 ‘성: 쾌락의 추구가 우리의 유일한 목적인가?’에서

## 근간



## 비전의 사람

메시지복의 감동을 단행본으로 다시 읽는다!

메시지복은 기독교 출판계에 새 바람을 일으켰던 《비전의 사람》이 설교에 영향을 받은 목회자들은 비전을 목회와 세로로 키워두는 데서 비롯되었다. 청년들은 비전의 사람이 되고자 신앙의 목표를 새롭게 수정했다. 이들의 요청으로 마침내 단행본 《비전의 사람》이 출간된다.

“그의 절구는 우리의 상상 가까에서 전율을 번딘다. 또한 그의 말 한 마디 한 마디는 우리 양심의 구석구석에 응크리고 있는 아픔을 서슴없이 들춰낸다.” - 김중희 기자(뉴스앤조이)

차례: 1. 논문 사람 2. 빛 나는 사람 3. 성전의 사람 4. 비전의 사람

이재철 지음/양장/10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김혜수 (khs@hsbooks.com)



## 시편사색

C. S. 루이스의 담백하고 겸손한 시편묵상 나눔!

중세와 르네상스 문학을 전공한 탁월한 문학가인 루이스가, 시편을 읽으면서 얻은 깨달음과 통찰, 은혜와 묵상을 풀어 낸 책. 시편을 연구하고 설교하는 신학자이나 목회자들에게는 ‘전본’의 가치가 주어질 것이며, 여전히 시편을 어렵고 멀게만 느끼는 평신도들에게는 성경에 관해서는 ‘아바추어’인 저자의 묵상 나눔(haring)을 통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시편의 세계에 접근할 때마다, 학자들 때문에 겁을 집어 먹었거나 너무 오래된 그 언어와 문화가 벽으로 다가왔던 이들이라면, 루이스가 놀랄만큼 담백하고 겸손한 신앙으로 쓴 이 책을 통해 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유진 페터슨

C. S. 루이스 지음/이종택 옮김/A5신변형/양장/10월 출간 예정

책임편집 유영복 (yoyok@hsbooks.com)



홍성사의 여름맛이 서점행사는 '소설 읽기'를 주제로 5개 서점이 함께했다. -영일부 오민택 과장

종로 영일부 2004. 6. 28 ~ 7. 18

광화문 교보문고 2004. 7. 1 ~ 7. 31

# 하늘에 속한 사람

THE HEAVENLY MAN

현대판 사도행전의 기적, 원 형제의 중국 전도행전

“한국 교회를 울리고 있는,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의 감동적 수기”

“금식을 시작한 지 75일째 되는 날 새벽 3시, 찬란한 빛이 내 감방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 본문에서

“이 책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그럼에도 원 형제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놀라운 방법으로 사용한다. 정말 이 책은 믿기 어려운 정도로 놀라우며 깊은 감동을 준다.”

-현제인 사도(예수원 공동설립자)

“이 책은 일단 들면 밤을 지새워서라도 끝까지 읽지 않을 수 없는, 중국 지하교회 한 젊은 지도자의 수난과 고통과 기적의 생생한 간증이다.”

-이시영 장로(전 유엔대사)

★ 2003 영국 기독교출판발행회 ‘올해의 책’ 수상!

★ 2004 영국 ‘기독교출판상’ 수상!

원 형제\_폴 헤더웨이 지음/고석만 옮김/민음의 글들 214/A5신변형/408면/12,000원

홍성사 TEL: 333-5161 FAX: 333-5168 http://www.hsbooks.com E-mail: hsbooks@hsbooks.com

# 예수를 업고가는 아프리카 당나귀

부랑자요 강패로 떠돌던 청년이 선교사로 거듭난 이야기

인생의 갈림길에서 만난 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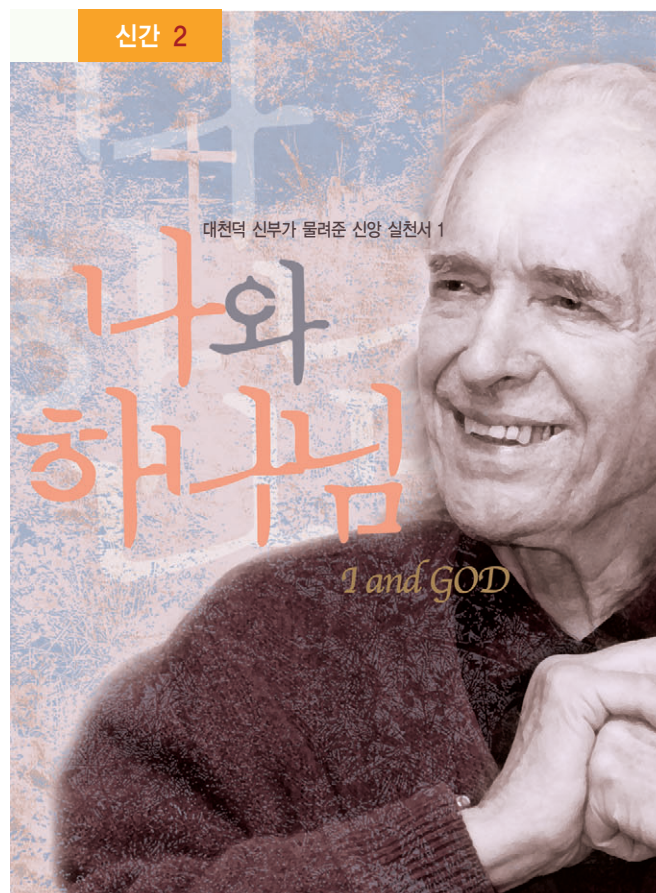
독탄을 던지려 들어갔던 전도집회에서 오히려 ‘복음의 폭탄’을 맞은 스티븐 통구의 소설보다도 더 흥미진진한 희실 이야기!

“눈물, 감동, 그리고 도전! 스티븐의 간증은 절망에 처한 청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며, 주를 온전히 섬기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격려와 도전이 될 것이다.” - 홍성진(예수전도단 동아시아 대표, 열방대학 책임자)

“스티븐 통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훈련일 것이다.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자아의 뜨거운 열정은 바로 그런 삶의 결과가 아닐까.” - 김중원(두란노 해외선교회 총무)

스티븐 통구 지음/고석만 옮김/민음의 글들 215/A5신변형/304면/9,800원

OUT of the BLACK SHADOWS



## 신학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신앙 실천에 관한 해답!

“이 책은 오늘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교회에 이바지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이마 신학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일일 것입니다.” - 머리말에서

차례: 1부 나와 하나님 2부 신자의 성장 3부 신자의 생활 4부 신자의 가정

대천덕 지음/예수원 역음

민음의 글들 216/A5신변형/400면/양장/14,800원

※이서서 ‘기도생활, 교회생활, 가정생활’을 담은 《우리와 하나님》이 출간됩니다.



## 한국 교회와 천만 성도 변화를 열망하는 어느 평신도 교사의 쓴소리

‘성도가 변해야 교회가 변하고 교회가 변해야 사회가 변한다!’

흔히 기독교계의 ‘한재현선생’으로 일컬어지는 (뉴스앤조이)에 인기리에 실렸던 글 모음으로, 한국 교회와 목회자의 폐습에 메스를 들어대는 신앙 칼럼, 고등학교 교사인 저자가 시대를 꿰뚫어보는 신앙의 눈으로 읽이 낸 우리 시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초상(肖像)이 절절하게 다가온다.

차례: 1부 진리를 찾아서 2부 교회여, 하나님의 교회여 3부 마음으로부터의 혁명 4부 세상을 향하여

유성오 지음

A5신변형/288면/8,000원